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종민, 이성준
 다음주 독서: 고미현, 유수진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따, 우상인 사비나
 다음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이번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모어, 김태진 하상바로로
 다음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로로,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올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85
 교무금: \$ 440

 합 계: \$ 725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11월 18일, 12월 2, 16, 30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11월 12, 26일, 12월 10, 23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주. 11월 5일
대학원 구역	11월 19일
학부생 구역	미정

<복음 이어서>

그런데 한 талан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талан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талан트를 빼앗아 열 талан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33 주일]

2011년 11월 12일

<제 1 독서> 잠언, 31, 10-13, 19-20, 30-31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 5, 1-6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너는 네 손으로 벌어먹으리니,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방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25, 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талан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талан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талан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талан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талан트를 더 벌었다. 두 талан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талан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талан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талан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талан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талан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талан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талан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талан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талан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복음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16 봉헌: 221 성체: 504 파견: 467



생명의
말씀

내게 아름다움은 그렇게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왔다.

프랑스의 소설가는 죽음에 대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것뿐일지도 모른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한량없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무성한 잎을 떨구어 내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겨울나무처럼 말입니다.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보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면 놀이에 정신이 없었던 날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죽음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고 살아갈 날들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해 보는 시간이 위령성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탈렌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종들과 셈을 합니다. 다섯 탈렌트로 다섯 탈렌트를, 두 탈렌트로 두 탈렌트를 더 번 종은 칭찬받지만 한 탈렌트를 그대로 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 버리고 맙니다. 하느님 나라는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삶이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싹틔웁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래를 보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이 싹트고, 위를 보지 못하고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만이 자리하며, 밖에만 관심을 두다 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씨앗을 자라게하는 지름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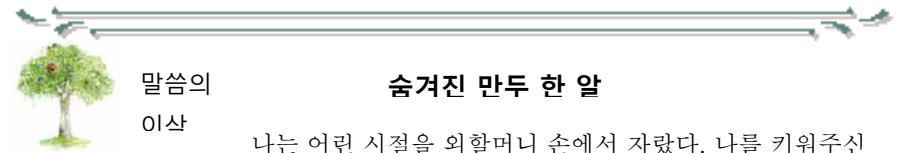
예전에 심리공부를 할 때 담당 교수님은 제게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자만심이 높아서라고... 자만심은 자존심이나 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도를 뜻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반듯이 좋은 조건 속에 살아 온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란 주어진 조건이나 위치가 아니라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북한산 너머로 저녁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황홀한 고백처럼 들리던 그 시간, 홀로 남겨진 한 아이는 그렇게 지는 노을을 한참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윈 탓이었지만 그 홀로됨이 “아름다운이란 단지 고운 것이나 예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련함이고 아릿함”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애절하고 아릿한 그리움의 색채를 띠고 다가오듯이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름다운 빛깔로 자리할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충실성을 담보하는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신도 주일입니다. 삶이 고달픔의 연속이고 힘겨움에 숨이 막히는 형국일지라도 아름다움이 아련한 그리움의 색채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색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고유한 삶의 색감이야말로 그분을 마주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의 충실성이 될 테니 말입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공지사항

- 주일학교 교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구역장이나 사목 회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 복사/미사 안내 봉사자 (전례부 소속)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례담당 (김태진 형제님)이나 사목회장에게 말씀해 주세요.
- 구역모임 및 기타 단체 모임 일정을 1~2 주 전에 주보담당(조성익 형제님)께 알려주시면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이산

숨겨진 만두 한 알

나는 어린 시절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뭐 하나라도 나를 먹이고 챙겨 주시느라 자신의 몫은 늘 뒷전이셨다. 간식이든 반찬이든 혹시라도 내가 “더 줘!” 한 마디를 할까 봐 당신 몫은 내 배가 찔 때까지 안 드시고 기다리시곤 했다. 할머니는 독실한 신자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을 거르는 일이 결코 없으셨다. 그렇게나 나를 끔찍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셨던 할머니지만 주일미사만큼은 내가 아무리 칭얼대고 할머니 손길을 졸라도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으셨다. 이런 나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날에는 꼭 한마디 하셨다.

“이 할머니가 하느님 뵈러 갔다 오는 게 내 새끼한테도 좋지.” 매달리는 내 손을 떼어놓고 성당에 가신 날에는 동대문시장에 들러 만두를 사 들고 오셨다. 만두꾸러미를 본 나는 환호를 지르며 마당을 뛰어 돌고 그 사이 할머니는 초간장을 내오셨다. 정신없이 만두를 먹다 “할머니도 하나 먹어” 하고 내밀면 할머니는 “그래” 하고 만두를 받으셨다가, 내가 게 눈 감추듯 만두 다섯 개를 먹어 치우고 나면 먹는 시늉을 하느라 잇자국만 살짝 나 있는 아까 그 만두를 뒷집 진 손에서 내미셨다. “할미는 먹기 싫다. 내 새끼 더 먹어라.” 나는 어른이 되어서야 성당을 찾기 시작했다. 어릴 적에 성당에 데리고 가면 집에 가자 칭얼대는 탓에 주일이면 집에 남겨졌던 내가 제 발로 성당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나도 마땅한 답이 없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고, 세례받기를 차일피일 미루면 웬지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내 머리에 심어주신 생각 때문에 그랬었나 싶다. 하지만 그렇게 영세를 받고도 한참 동안 냉담을 했다. 그리고 그 냉담 중에 할머니는 하느님 곁으로 가셨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도 난 성당을 열심히 다니지 않았다. 그러다 6 년 전쯤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다. “이번 주일엔 성당 가야겠다!” 나도 모르게 이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그 주일, 정말 오랜만에 성당을 찾은 나는 미사가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환희와 즐거움에 빠졌다. 그 뒤엔 열심히 성당을 다니게 되었다. 그날의 일은 이유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날 일을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당신이 끔찍이 아끼셨던 손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사고 하느님께 조르신 것 같다. 뒷집 진 손에 들고 계셨던 그 만두 한 알을 내 새끼에게 내밀어 주시듯, 할머니는 내 머릿속에 하느님 생각을 심어 주신 것이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했었다. 내가 알 길은 없지만 “내가 하느님 곁에 가면 언젠가 그 만두 한 알 내 새끼 손에 쥐어줄게.” 이러셨을 것 같다. 나는 할머니께서 영원한 삶을 하느님 곁에서 보내고 계심을 믿는다. 할머니의 연미사를 봉헌하거나 산소를 찾으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할머니! 나 이제 배불러. 나도 하느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깐 이제 할머니가 하느님 곁에서 그 사랑의 만두 드세요.

박용만 실바노